

# 長壽王代를 전후한 시기

## 고구려의 政局과 體制 변화

- 장수왕의 集權策과 그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

曹 泳 光\*

- 1. 머리 말
- 2. 長壽王代의 政局
- 3. 長壽王 사후의 政局 및 統治體制的 변화
- 4. 맺 음 말

### 1. 머리 말

고구려의 20대 왕인 長壽王(재위413~491)의 역사적 의미는 그의 긴 통치기간만큼이나 고구려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특히 왕의 재위 후반기에 해당하는 5세기 말과 사망 후인 6세기 초는 고구려사에서 또 한번 체제 변혁을 겪게 되는 시기로, 이 시기를 분수령이라 칭할만하다. 高句麗史를 統治體制的 變動을 중심으로 시기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前期(建

\* 경북대학교 강사

國~3세기 말), 中期(4~5세기), 後期(6~7세기)로 三分할 수 있다.<sup>1)</sup> 이 중 4~5세기는 王權이 강성하고 集權體制가 확립되어 中央集權體制期로, 반면 6~7세기는 지배세력 내에서 대립과 분열이 발생하고 그 결과로 성립된 貴族聯立體制期로 불린다.

곧 本稿에서 다루고자 하는 장수왕의 집권 후반기 및 사망 직후에 해당하는 5세기 말~6세기 초는 고구려의 中央集權의 專制王權體制가 동요하면서 새로운 貴族聯立體制가 탄생하게 되는 과도기인 동시에 중요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인 것이다.<sup>2)</sup> 지금까지 고구려사의 시기 구분은 각 연구자들의 시각과 연구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시도되었지만, 공통적으로 5세기 말~6세기 초를 중요한 체제변동의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sup>3)</sup> 그러나 이 시기는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현전하는 史料가 너무나 빈약해 구체적인 시대상을 증명하거나, 체제변화의 動因 등을 詳論한 연구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周知하듯 6세기의 고구려 정국은 귀족세력 간의 치열한 대립과 반목으로 매우 혼란한 양상을 띠었다. 이러한 현상이 왕권이 최고조에 달하고 집권 체제가 완성되어가던 5세기를 지나자 급속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그 원인과 그것이 결과적으로 미친 영향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근래에 고구려 후기, 곧 6세기 초·중반 이후의 정세 동향에 관한 몇몇 연구자의 글들이 나와서 이러한 의문의 많은 부분을 해소시키긴 했으나,<sup>4)</sup> 아직도 구체적인

1) 金賢淑, 「6세기 고구려 集權體制 動搖의 一要因」, 『경북사학』 22, 1999, 1쪽.  
 2) 6세기 중반 이후의 고구려 정치체제에 대해 「貴族聯立體制」로 처음 설명한 것은 盧泰敦이다(盧泰敦, 「고구려 漢江流域 喪失의 原因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13, 1976, 33~34쪽).  
 3) 末松保和는 처음 수도의 변천에 따라 三期로 구분하였다(『朝鮮三國·高麗의 軍事組織』, 『靑丘史草』 1, 1965: 『高句麗と朝鮮古代史』, 吉川弘文館, 1996, 59쪽). 林起煥은 국가 형성~3세기 말까지, 4~5세기, 6~7세기로 三分해 고구려사를 시기구분하고 5세기에 중앙집권체제가 완성된다고 보았다(임기환, 「6·7세기 고구려 정치세력의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5, 1992, 28쪽).  
 4) 임기환, 앞의 논문, 1992.

부분에는 미진한 점이 있는 편이다. 특히, 6세기 초반 갑작스레 集權體制가 동요되고 貴族聯立體制가 성립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세히 고찰된 바가 없다.<sup>5)</sup>

이 글에서는 先學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 6세기 중반 고구려의 혼란한 政局에 대하여 현재까지 논의된 것들 중 재검토를 요하는 부분과 새로이 주목해 볼 만한 장수왕 집권 후반기를 전후한 시기의 변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5세기 장수왕대에 절정을 이룬 國王의 위상 강화와 중앙 집권체제의 구축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것이 후대의 정치체제 변화에 미치게 되는 영향 등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장수왕의 재위 후반기에 일어났던 대규모 귀족숙청 사건을 새로 검토해 봄으로써 고구려 후기 체제변동의 배경을 찾아보려 한다. 장수왕이 행한 대규모 귀족숙청은 일부 연구자에 의해 그 정치적 중요성이 조심스레 다루어졌다.<sup>6)</sup> 그러나 아직 그 구체적인 원인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다. 여기서는 고구려가 舊中國郡縣地域(樂浪·帶方)을 領域化하면서 그 지역의 중국계 세력들을 이용해 王權을 강화하는 것과 왕권과 연계된 中國系 세력들의 성장, 그리고 長壽王에 의해 다시금 이들이 숙청당하게 되는 과정들을 자세히 고찰할 것이다.

3장에서는 고구려가 국력과 왕권이 최고조에 달했던 長壽王代를 지나 6세기에 접어들면서 긴박한 정세변동이 일어나고, 安臧王의 피살 후 처음으로 귀족연립적 체제가 성립하게 되는 정황과 그 動因을 다룰 것이다. 일반적으로 安臧王의 피살은 고구려 후기 정치체제 변화에 중요한 분수령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야기된 정국혼란과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귀

족세력들의 내분은 결코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다. 이런 현상은 6세기 내내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고구려 후기의 정치체제를 貴族聯立體制로 귀결짓게 한 주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安臧王 弑害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6세기 고구려의 體制와 정세 변동의 배경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건은 5세기 후반에 단행된 장수왕대의 대숙청 기록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보이는 바, 5세기 말의 정세 변동을 밝혀 이후의 정치적 변화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2. 長壽王代의 政局

### (1) 長壽王이 실시한 王權 強化策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고구려는 3세기 중엽부터 전통적인 정치체제인 那部體制<sup>7)</sup>가 해체되기 시작해 늦어도 3세기 말경에는 中央集權的 통치체제의 기틀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4세기 후반 小獸林王代에는 불교공인과 律令頒布 등 일련의 체제정비를 통해 王權強化와 中央集權的 체제성립에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고구려가 실질적으로 國王權을 더욱 전제화하고 中央集權體制的 완성을 보는 것은 5세기에 들어서부터이다.<sup>8)</sup> 특히 長壽王의 父王인 廣開土王(391

노태돈, 「5~7세기 고구려의 지방제도」, 『한국고대사논총』 8,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1996.

노태돈, 「귀족연립정권과 연개소문의 정변」,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1999.

김현숙, 앞의 논문, 1999.

5) 임기환, 「고구려 정치사의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고대사연구』 31, 2003.

6) 임기환, 앞의 논문, 1992;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2004, 269~270쪽.

7) 고구려 전기의 정치운영체제인 那部體制에 관한 대표적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노태돈, 「삼국시대의 '部'에 관한 연구」, 『한국사론』 2, 1975.

임기환, 「고구려 초기의 지방통치체제」, 『경희사학』 14(朴性鳳教授回甲紀念論叢), 1987.

여호규, 「고구려 초기 나부통치체제의 성립과 운영」, 『한국사론』 27, 1992.

김현숙, 「고구려 전기 那部統治體制的 운영과 변화」, 『역사교육논집』 20, 1995.

김현숙, 「고구려 나부체제의 형성과 해체」, 『한국고대사연구의 새동향』, 서경, 2007.

8) 최근에는 이와 같은 전통적 견해에 반대해 4~5세기 무렵까지도 고구려가 분권적 체제에

~412)은 前代부터 축적되어온 국력과 왕권의 신장을 바탕으로 활발한 정복활동을 펼치고 고구려를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強者로 끌어올렸다. 광개토왕대의 변화에서 눈여겨지는 것은 활발한 정복활동을 支持해 줄 만한 내적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 시기에는 중앙의 통치조직에 대한 준비는 물론, 佛敎를 더욱 진전시키고 지방제도와 군사조직 등도 정비한 것으로 밝혀졌다.<sup>9)</sup>

廣開土王에 이은 長壽王代(413~491)는 왕권이 가장 강성하고 중앙집권화의 정도와 고구려의 국가적 역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지배질서의 확립을 통한 왕권의 專制化와 국력의 절대적 우세를 통한 국제적 지위 향상 등으로 5세기 고구려의 독자적인 天下觀 형성과 天孫의 王者 개념의 성립을 보기에 이르렀다.<sup>10)</sup> 이러한 사실은 5세기경의 고구려 金石文 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1) 河伯之孫 日月之子 鄒牟聖王 … 國置上大□土地好太聖王 … (『牟頭婁墓誌』<sup>11)</sup>)

A-2) 夫餘奄利大水王臨津言曰我是皇天之子 … 國置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 (『廣開土王陵碑』)

A-3) 百殘新羅舊是屬民 由來朝貢 … 歸王自誓 從今以後 永爲奴客 … ( " )

A-4) 太王敎造合杆用三斤六兩( 瑞鳳冢 出土 銀合杆 銘文 )

A-5) 五月中 高麗大王相公□新羅寐錦 世世爲願 如兄如弟 上下相和守天 … 東夷寐錦土( 中原高句麗碑 )

놓여 있어 국왕권이 약하고 집권화의 정도도 느슨한 형태였다고 보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다(조우연, 『4~5세기 고구려 정치체제-고구려의 '南進'과 관련하여-』, 『고구려연구』 28, 2007).

- 9) 朴性鳳, 『廣開土好太王期の 內政整備에 대하여』, 『千寬宇先生還曆念韓國史學論叢』, 1985, 197~205쪽.
- 10) 이러한 변화는 4세기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5세기대에 절정에 이르게 된다(양기석, 『4~5C. 高句麗 王者의 天下觀에 대하여』, 『湖西史學』 11, 1983, 43~44쪽).
- 11) 釋文은 『譯註韓國古代金石文』(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2)의 同항목 참조(이하 金石文 同一).

먼저, A-1)과 A-2), A-4)에서 볼 수 있는 日月之子, 皇天之子, 聖王, 好太王, 太王 등의 표현은 천손적 왕자 개념의 성립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太王, 聖王 등의 美稱의 등장을 통한 大王意識<sup>12)</sup>의 발현과 더불어 國王의 위상강화와 王室世系의 神聖化 작업으로 구체화된다.

특히, A-1), A-2)의 日月之子, 皇天之子 등의 표현은 고구려 왕실의 신성화와 깊은 관련을 가진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본래 부여족 계통의 여러 족속들 사이에 퍼져있던 시조설화인 東明神話가 계루부 왕실의 시조인 朱夢 전승으로 고착화되었다.<sup>13)</sup> 장수왕대에는 왕권강화를 바탕으로 하여 왕실의 世系認識을 始祖로부터 체계화해 정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왕권의 神聖性을 확보하려했던 것이다.<sup>14)</sup>

이와 맥락을 같이 해, 5세기 동북아의 강국으로서 고구려는 독자적 天下觀을 형성하고 주변국들을 고구려 중심으로 편제하기에 이른다.<sup>15)</sup> 이는 A-3), A-5)에 나타난 朝貢, 歸王, 東夷, 奴客, 守天 등의 구체적 표현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東夷라는 표현은 주변국에 대해서 고구려가 中華와 같은 위치임을 과시한 것으로, 이는 중국의 華夷觀까지 차용해 자국의 우월성과 스스로 天下 四方의 中心임을 드러낸 것이다.<sup>16)</sup>

이 같은 고구려의 독자적 天下觀과 天孫的 王者 개념의 형성은 대외적으로 고구려의 힘과 위상이 높아졌기에 가능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내적으로

12) 太王號는 적어도 4세기 중반 故國原王 때부터 사용된 것으로 나온다(武田幸男, 『高句麗 太王의 國際性』,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1989, 247~249쪽). 이때부터 서서히 출현하기 시작한 고구려 國王에 대한 大王(太王)意識은 5세기에 절정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양기석, 앞의 논문, 1983, 34~38쪽; 여호규, 『1~4세기 고구려 정치체제 연구』, 서울대학교사학위논문, 1997, 154~160쪽).

13) 노태돈, 『5세기 金石文에 보이는 고구려인의 天下觀』, 『한국사론』 19, 1988, 34~42쪽.

14) 조인성, 『4, 5세기 高句麗王室의 世系認識 變化』, 『한국고대사연구』 4, 1991, 68~71쪽; 金柄坤, 『三國時代 中央集權의 王權의 登場에 따른 支配理念의 채택』, 『한국사연구』 117, 2002, 9~14쪽.

15) 노태돈, 위의 논문, 1988, 42~50쪽.

16) 노태돈, 위의 논문, 46~48쪽.

왕의 초월적 권위형성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이는 그만큼 기존 귀족들과 國王의 지위 격차가 커져, 상대적으로 귀족의 위치가 낮아지고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고구려 前期의 族的인 기반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던 '諸加'적 성격의 귀족세력들이 '群臣'적 성격으로 바뀌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5세기 들어 고구려의 전통적인 귀족회의체가 크게 약화·축소되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sup>17)</sup>

B-1) 長壽王 十二年 … 秋九月 大有年 王宴群臣於宮(『三國史記』 18, 高句麗本紀6 長壽王12年條)

B-2) 長壽王 十五年 移都平壤(위의 책, 長壽王15年條)

장수왕대에 일어났던 정치적 변화 중 가장 먼저 주목되는 것은 B-2)에 보이는 平壤으로의 遷都 기사이다. 그동안 고구려의 평양천도는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어들였고, 왕권강화의 산물 혹은 후에 있을 정치적 대변혁의 신호로 여겨져 왔다.

평양천도의 배경에 대해서는 徐永大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는 장수왕대 평양천도의 動機를 첫째는 樂浪平野 지역에 위치한 평양일대가 풍부한 농업생산력을 제공해 주므로 경제적 기반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았고, 둘째는 귀족세력의 견제를 위해 당시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왕권의 강화와 중앙집권적·超部族的 支配秩序의 정비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파악하였다.<sup>18)</sup>

평양은 美川王 13년(313)의 樂浪郡 축출 이후 지속적으로 고구려 王들의 관심을 받아왔고, 특별히 관리되었던 듯하다.<sup>19)</sup> 그리고 광개토왕대에 이르

17) 윤성용, 「고구려 귀족회의의 성립과정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11, 1997, 355~356쪽.

18) 徐永大, 「고구려 平壤 遷都의 動機」, 『한국문화』 2, 1981, 114~137쪽.

19) 임기환은 고구려가 313년과 314년 樂浪·帶方郡을 축출하고, 옛 中國郡縣 지역으로 문화

면 이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이 착수되고 장수왕대의 천도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적 성격을 갖는 일이 수행되었다.<sup>20)</sup> 장수왕 15년(427) 평양으로의 본격적 천도에 앞서 B-1)에 나타나는 왕이 베푼 群臣宴會도 귀족세력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일종의 服屬儀禮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물론 오랜 세월 동안 수도로서 기능을 해오고, 귀족들의 기반이 되었던 國內城을 떠나 평양으로의 천도를 감행한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처럼 이미 오래 전부터 역대 고구려왕들이 사전 준비적 작업들을 평양에 해왔고, 君臣宴會를 통한 동의 절차를 밟아 행하였음을 고려한다면, 귀족들이 크게 반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시 초월적으로 확립된 왕의 위상을 상기해도 그러하다.

이를 토대로 한 평양천도는 왕권과 集權體制的 강화에 의의가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급격한 정치적 변화나 귀족세력들의 대규모 반발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사건은 못되었다. 그리고 오랜 시일을 두고 累代에 걸쳐 준비한 천도인 만큼 고구려의 핵심 지배층은 그 기반을 평양으로 옮겼으리라 사료된다.

장수왕대의 평양천도는 그 자체로서 정치적 의미를 띠기도 하였지만, 신장된 국력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 기반과 국가의 안전성 확립이라는 목적으로 시도된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수도였던 國內城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생산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웠고, 3세기 말과 4세기 중반에 中國(魏)과 慕容氏 세력으로부터 대규모의 침입을 받아 함락되는 등 심각한 위협에 노출된

적 선진 지역이었던 이곳을 幕府制로 통치하였던 것으로 보았다(임기환, 「4·5세기 낙랑·대방지역 경영-안악3호분·덕흥리 고분의 墨書銘 검토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147, 1995: 앞의 책, 2004, 187~199쪽). 그리고 이 지역에 豪族化한 舊 中國系統의 지배세력을 중용하고 왕권강화의 기반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했다(임기환, 위의 책, 2004, 272~274쪽).

20)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廣開土王 2年條에 보이는 平壤의 9寺 창건 기사가 이를 방증하는 것이다. 李道學은 이러한 寺刹 창건이 정치적 의도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고, 遷都 계획은 그 이전인 故國壤王代에 확정된 것으로 추론하였다(李道學, 「광개토왕릉비의 건립 배경-평양천도와 관련해서」, 『白山學報』 65, 2003, 46~47쪽).

적이 있기 때문이다. 고구려가 首都의 방어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공을 들였음은 평양천도를 전후해 다수의 城들이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축성되고, 수도 주변에 일종의 위성방어체제를 구축한 것을 보아 알 수 있다.<sup>21)</sup>

곧 5세기 영역이 최대로 확장되고 동북아시아의 盟主로 자처할 정도로 강성해진 고구려는 南北朝와 수평적 등거리 외교를 통한 국제적 균형<sup>22)</sup>과 높아진 국가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 기반의 확보에 더욱 큰 관심을 두고 南進을 강행하였던 것이다.<sup>23)</sup>

## (2) 長壽王의 樂浪·帶方系 귀족 숙청과 그 배경

앞에서 살핀 바처럼 고구려는 3세기 말경에 那部體制가 해체되는 정치체제의 변동을 겪으며 4세기를 거쳐 5세기에는 강력한 중앙집권국가로 발돋움했다. 고구려의 그러한 변화는 국력을 한데 모아 영역의 확대와 국가 위상의 신장 같은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동시에 지나친 王權의 專制化와 정치체제의 변동으로 인해 장차 전개될 政局 혼란의 소지를 제공해 주고 말았다. 이를 長壽王 재위 후반, 곧 5세기 말의 정국 동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장수왕 60년(472)을 전후한 시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숙청에 관한 기록이다.

C-1) 延興二年(長壽王60年) 其王餘慶 始遣使上表 … 今璉有罪 國自魚肉 大臣強族 戮殺無已 罪盈惡積 民庶崩離 始滅亡之期 假手之秋也(『魏書』 100, 列傳88 百濟)

- 21) 채희국, 『고구려 역사 연구-평양천도와 고구려의 강성-』,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 25~49쪽; 손영중, 『고구려사』 2,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1997, 69~80쪽.  
 22) 徐榮洙, 「三國과 南北朝교섭의 성격」, 『東洋學』 11, 1981, 159쪽.  
 23) 朴性鳳, 「고구려의 南進發展에 관한 연구」, 慶熙大博士學位論文, 1979, 102쪽; 「好太王 高句麗南進政策의 意義」, 『廣開土太王과 高句麗 南進政策』, 學研文化社, 2002, 20~21쪽.

C-2) 長壽王 五十九年 秋九月 民奴各等 奔降於魏 各賜田宅(『三國史記』 18, 高句麗本紀6 長壽王59年)

C-1)은 고구려의 장수왕 60년(472)에 해당하는 延興 2년에 백제 蓋鹵王이 北魏의 孝文帝에게 보낸 외교문서이다. 이를 통해서 당시 고구려는 장수왕이 '大臣強族', 즉 유력 귀족들을 대거 숙청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분명 王에 의해 일방적으로 자행된 것으로, 外國에까지 알려질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이었다. 그리고 C-2)에서 나타난 것처럼 유력인사<sup>24)</sup>의 외국망명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평양천도(427) 시기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장수왕이 漢城 공략(475)을 앞두고 僧侶 道琳을 위장 첩자로 백제에 파견한 것과 이를 蓋鹵王이 쉽게 신임한 기사는 475년에 가까운 어느 시점에 고구려에서 귀족숙청이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sup>25)</sup>

이러한 일련에 대한 사태는 장수왕이 大孫인 羅雲(후일의 文咨王)의 안전한 繼位와 전제적 왕권의 유지를 위해 귀족세력들을 탄압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귀족들은 매우 동요하였고, 잠재적으로 왕권에 반발하였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 대규모의 귀족 탄압은 고구려 후기 政局의 혼란에 遠因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장수왕이 단행한 숙청의 구체적인 대상을 밝혀내기란 매우 어렵다. 하지만, 그의 재위 60년을 전후한 시기의 상황을 전하고 있는 中國 史書에는 당시 고구려에서 유력 귀족 몇몇의 망명 기사를 실고 있어 이들을

24) 기록에는 노각 등이 民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들이 北魏로 망명해 田宅을 하사받고 있음을 볼 때 유력 귀족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임기환, 앞의 책, 2004, 269~270쪽).

25) 『三國史記』 25 百濟本紀3 蓋鹵王 21年. 金壽泰는 도림의 위장 망명이 개로왕 18년(472)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金壽泰, 『百濟 蓋鹵王代의 對高句麗戰』, 『百濟史上的 戰爭』, 서경문화사, 2000, 236~237쪽). 이는 장수왕의 귀족숙청이 개로왕이 北魏에 表文을 올린 시점에서 그리 멀어지지 않은 시기에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검토해 본다면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리라 본다.

- D-1) 高崇, 字積善 渤海裔人 四世祖撫 晉永嘉中與兄顧 避亂奔於高麗 父潛 顯祖(獻文帝 465~471) 初歸國 賜爵開陽男 … (『魏書』 卷77, 列傳 高崇傳)
- D-2) 高肇, 字首文 文昭皇太后之兄也 自云本渤海裔人 五世祖顧 晉永嘉中避 亂入高麗 父颺 字法脩 高祖(孝文帝 471~499)初 與弟垂信及其鄉人韓 內冀富等入國 拜厲威將軍 河間子 垂信明威將軍 俱待以客禮 賜奴婢牛 馬綵帛 … (『魏書』 卷83, 列傳 高肇傳; 『北史』 卷80, 列傳 高肇傳)
- D-3) 高穎 字昭玄 一云敏 自云渤海裔人也 其先因官北邊 沒於遼左 曾祖嵩 以太和(孝文帝的 年號 477~499)中 自遼東歸魏 官至衛尉卿 … (『北史』 卷72, 列傳 高穎傳)

위의 기록들은 고구려의 귀족들이 高潛·高颺·高嵩 등이 472년을 전후해 中國으로 망명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그들이 長壽王으로부터 탄압을 받아 망명하게 되었음을 직접 전하는 표현은 없다. 그러나 이들의 先祖가 亂을 피해 入境했다가 수세대가 지나서 갑자기 고구려를 떠난다는 것은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리고 위의 자료들에서 나타나듯 이들이 北魏로 망명하자 북위 조정에서는 한결같이 官爵을 제수하고 田宅과 奴婢를 下賜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고구려에서도 상당히 지위를 가진 귀족들이었음이 틀림없다. 이런 위치를 포기하고 중국으로 망명하였다는 것은 모종의 정치적 탄압이 이들에게 가해졌음을 짐작케 한다.

위 자료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비슷한 망명시점<sup>26)</sup>과 모두 본래 중국계로, 渤海郡 蔚縣을 先鄉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기록이 너무나 소략해

26) 이들의 망명 시점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高潛의 경우는 北魏 獻文帝 재위 초인 465년 무렵이고, 高颺은 奴各과 비슷한 471년, 高嵩은 477년 이후의 어느 때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長壽王의 귀족숙청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조금씩 시간적 간극을 보이며 몇 차례 자행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쉽게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현재 전하는 망명기사가 이들이 전 부임을 감안한다면, 장수왕 말년에 대대적인 탄압을 받은 대상은 주로 舊樂浪·帶方지역출신의 중국계 귀족들이 아닐까한다.

물론 이들의 先祖(高撫, 高顧)가 고구려로 망입해 와 樂浪·帶方지역에 안치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하지만 4세기 고구려가 이 지역을 영역화할 때 5胡 16國의 혼란을 피해 고구려로 망명한 중국계 인물들을 중요하게 활용하는 것을 보면,<sup>27)</sup> 망입한 사유가 비슷한 이들 역시 樂浪·帶方지역에 안치되었을 공산이 크다.

이들의 출자에 대해서는 고구려계<sup>28)</sup>로 보는 견해와 중국계<sup>29)</sup>로 보는 견해로 대별되는데, 徐永大는 이들이 모두 王姓인 高氏를 칭하고 있다는 점, 망명 후 高句麗 출신이라는 출신성분 때문에 정치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중국계가 아니라 원래부터 고구려인이었을 것으로 보았다.<sup>30)</sup>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들로 볼 때 이들은 고구려인보다는 中國系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高氏는 魏晉南北朝時代의 중국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성씨였다.<sup>31)</sup> 그리고 같은 漢人일지라도 中國에서는 樂浪郡과 같은 邊郡 출신의 경우 官界에서 제약을 받았다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기 때문이다.<sup>32)</sup> 또한 이들이 모두 선조가 고구려로 유입하게 된 시점과 경위를 분명히 밝히고 있음도 중국계일 가능성을 높여준다.<sup>33)</sup> 한편 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27) 임기환, 앞의 책, 2004, 158~161쪽.

28) 천관우, 『인물로 본 한국고대사』, 정음문화사, 1987, 162~165쪽; 서영대, 앞의 논문, 127쪽; 김진한, 「5세기 말 고구려의 對北魏外交와 漢城 攻略」, 『북방사논총』 12, 2006, 308~309쪽.

29) 노태돈, 앞의 책, 1999, 460쪽.

30) 徐永大, 위의 논문, 127쪽.

31) 양기석, 「五世紀 百濟의 '王'·'侯'·'太守'제에 대하여」, 『사학연구』 38, 1984, 59쪽; 김영심, 「백제 지방통치체 연구-5~7세기를 중심으로」, 서울大博士學位論文, 1997, 97쪽.

32) 權五重, 『樂浪郡研究』, 일조각, 1992, 34~39쪽, 62~69쪽.

33) 특히, D-1), D-2)의 高颺과 高潛의 경우는 자신들의 先祖가 西晉(265~316) 말기 永嘉

燕에서 魏로 망명한 高宗<sup>34)</sup>의 경우 자신이 高句麗人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볼 때도 굳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속이며 망명했어야 할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중국계 귀족세력들이 고구려에서 갑작스럽게 탄압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樂浪·帶方지역의 중국계 귀족(이하 樂浪·帶方系으로 칭함)들은 4세기 초 이래 고구려가 이 지역을 점차적으로 지배하고 새로운 수도로까지 개발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집단이다. 우선 이들의 존재 양상부터 살펴보면 크게 토착 한인계와 망명 한인계의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모두 같은 漢系로 樂浪·帶方郡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집단이지만, 둘을 구분한 것은 이들 각자의 집단이 형성되는 시점이 다르고, 집단의 정체성에 있어서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토착 한인계는 漢郡縣의 지배층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곳에 뿌리를 내려서 4세기 초 漢郡縣이 소멸되는 시점에는 이미 이 지역에 완전히 토착화한 세력을 일컫는 것이다.<sup>35)</sup> 반면, 망명 한인계라 함은 주로 4세기 초 中國의 西晉이 멸망하면서 발생한 5胡 16국의 혼란을 피해 고구려로 유망해온 세력들이다.<sup>36)</sup>

이들 중 망명 한인계는 고구려가 새로이 확보한 낙랑·대방지역의 통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목적성을 갖고 수용한 것으로 생각된다.<sup>37)</sup> 곧 고구려가 이 지역을 정복한 후 이 지역의 유력 토착세력인 漢人系를 이용 혹은 통제하기 위하여 이들과 문화적 낙차가 적고 같은 민족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중국계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통치를 맡긴 것이다. 이들 망명 한인계는 현실적으로 이 지역에 아무런 세력기반이 없었으므로 자신들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해 준 고구려 왕권에 철저히 의지했을 것이고 고구려왕 역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들은 고구려 왕권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토착 한인계도 피정복민의 입장에서 자·타의적으로 고구려 왕권에 附庸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들도 선대로부터의 遺業과 지역에서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고구려 왕권에 적극 협력하였으리라 생각된다. 망명 한인계와 토착 한인계는 流入된 시점과 고구려 왕권이 수용한 목적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같은 중국계로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 간의 이질성은 점차 극복되었을 것이다.

고구려는 이렇게 확보한 문화적·경제적 선진지역을 단계적으로 고구려 영향권 내로 복속시켜 나갔다. 대체로 체제가 정비되는 小獸林王(371~384) 이전까지는 반독립적인 형태로 이 지역의 자치를 용인하는 방식으로 통치하다가,<sup>38)</sup> 이후 점차 직접적인 지배방식으로 전환해 나가며<sup>39)</sup> 늦어도 廣開土王(391~413) 중반 이후에는 완전한 직접지배로 전환하였다.<sup>40)</sup>

고구려가 낙랑·대방지역을 확보한 4세기 이래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 확립과정에서 특징적인 것은 왕권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만큼 낙랑·대방지역과 그곳의 세력이 왕권강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음을 추지할 수 있게 한다. 특히, 5세기 들어 직접지배에 들어가고, 급기야 平壤으로 수도가 옮겨짐으로 인해 이 지역 세력들은 더욱 왕

(懷帝의 年號 307~313) 중에 난을 피해 고구려로 入境하였음을 정확히 전한다.

34) 高琳 字季珉 其先高句麗人也 六世祖欽 然質於慕容廆 遂仕於燕 五世祖宗 率衆歸魏 拜弟一領民酋長 … (『周書』 卷29, 列傳 高琳傳).

35) 이들 토착 한인계의 기원은 최소한 後漢 光武帝가 薩水以南 지역에 파병해 樂浪郡을 재 정비하는 시점까지는 올라간다(『三國史記』 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27年(44); 『後漢書』 1下 光武帝紀1下 建武 30年(王調의 亂진압)).

36) 김미경, 「高句麗의 樂浪·帶方地域 進出과 그 支配形態」, 『學林』 17, 1996, 17~26쪽.

37) 임기환, 앞의 논문, 1995 참조.

38) 孔錫龜, 『高句麗領域擴張史研究』, 서경문화사, 1998, 179~171쪽.

39) 임기환이 제기한 將軍府를 개설하고 幕府制의인 통치방식이 적용된 시기가 이때로 보인다.

40) 김미경은 廣開土王代부터 이미 이 지역에 대한 직접 경영에 들어갔으며, 平壤으로의 천도 역시 본래는 廣開土王 때 실행하려던 사안일 것이라 추측하였다(김미경, 앞의 논문, 57~61쪽).

권과 밀착하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고구려의 지방통치가 강화되면서 이 지역에 있던 중국계 이주민들도 점차 고구려민화되어 갔을 것이다.

고구려의 전통적 귀족들에 비해 문화적으로 선진화되어 있었고, 대 중국 외교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았던 이들은 점차 王의 近侍의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王權의 支柱木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최근에 4~5세기 고구려에서 이미 국왕 측근의 근시조직이 성립·운영되고 있었다는 연구가 나왔다.<sup>41)</sup> 그러나 이 시기의 근시조직은 최고위직인 中裏都督이 國王이 개설한 幕府의 屬僚를 거느리고 왕실과 국왕의 사적 업무를 처리하는 기형적인 형태로서 일반 국정을 담당하는 外廷과는 구분이 되었고, 아직 왕권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로서는 미흡하다고 보았다.<sup>42)</sup>

어쨌든 樂浪·帶方系 귀족들은 4·5세기 이래 왕권의 적극적 후원 아래 중앙정계에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수왕의 평양천도 후에는 政局의 주도권을 잡았을 가능성도 있다. 아래의 사료는 그러한 추측을 뒷받침해 준다.

初晉人以七絃琴送高句麗 … 是第二相王山岳 存其本樣 頗改易其法制而造之 … (『三國史記』 32, 樂志 玄琴)

위의 기록에 보이는 王山岳은 樂浪·帶方지역의 유력 호족인 王氏로,<sup>43)</sup> 東晉(317~419)이 멸망하기 전인 廣開土王·長壽王 初期에 활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의 존재는 5세기 초반 당시 樂浪·帶方系 세력이 고구려 조정

41) 李文基, 「高句麗 莫離支의 官制的 性格과 機能」, 『白山學報』 55, 2000, 93~94쪽.

42) 李文基, 「高句麗 德興里古墳壁畫의 ‘七寶行事圖’와 墨書銘」, 『歷史教育論集』 25, 1999, 231~235쪽.

43) 三上次男, 「樂浪郡社會의 支配構造」, 『朝鮮學報』 30, 1964; 『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 吉川弘文館(東京), 1966, 32~62쪽; 공석구, 「平安·黃海地方出土紀年銘碣에 대한 研究」, 『진단학보』 65, 1988, 1~28쪽.

의 고위직에 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王山岳의 관직을 지칭한 第二相이란 표현이 第二官等인 太大兄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만약 그것이 2等官인 太大兄을 의미하는 표현이 맞다면, 이미 이 시기 낙랑·대방계 세력은 국왕의 근시조직이나 대외관계 등에 국한된 역할만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국정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王山岳을 亞相으로 기록한 것을 볼 때 고구려 조정에서 그의 위치가 상당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기존 고구려의 전통적 귀족세력들은 4, 5세기 이래 강력한 집권체제의 구축과 초월적 왕의 위상 확립으로 대표되는 왕권 강화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는 이미 지방세력화하였거나 상당히 약화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들의 세력 기반 자체가 완전히 박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중앙정계에서 그 위상이 약화되고 國王에게 복종적인 자세를 견지하였을 것은 분명하다.

이런 가운데서 5세기 왕권과 연계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樂浪·帶方系 세력은 장수왕 재위의 후반 무렵에는 왕이 새로운 위협으로 느낄 정도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한다. 그리고 장수왕은 이미 재위 60년에 이르고 年齡이 80에 가까웠던 만큼 후계 구도에 더욱 신경이 갔으리라 생각된다. 더구나 그를 이을 王嗣는 아직 靑年인 大孫(文咨王)으로, 장수왕은 자신과 정치역정을 같이 한 樂浪·帶方系 귀족들을 大孫이 감당하기엔 부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을지도 모르겠다.

혹은 장수왕의 後嗣 문제에 있어 樂浪·帶方系 귀족들이 大孫을 지지하기보다는 장수왕의 여타 王子를 지지하는 성향을 띠어,<sup>44)</sup> 이를 묵과할 수 없었던 왕에 의해 숙청을 당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 사건이 樂浪·

44) 長壽王에게 다른 왕자가 있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최근에 『中原高句麗碑』에 보이는 장수왕의 태자 共과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文咨王條의 왕자 助多가 다른 인물이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출되어 그 가능성을 열어둔 바가 있다(김진한, 앞의 논문, 310~311쪽).



帶方系 귀족들만을 대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주된 숙청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라 생각된다.<sup>45)</sup>

이러한 추정은 5세기와 6세기 고구려 정치체제 변동이 단순한 체제 변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두 시기의 지향점 혹은 성향에서 이질성이 발견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고구려 왕권은 4세기 말 이래 樂浪·帶方지역을 영역화하고 이 지역 세력들을 왕권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漢文化에 대한 일정한 지향성을 보인다. 이는 비단 문화적인 측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체제의 개편에도 실험적으로 채용된 듯하다.

이것은 광개토왕대의 幕府개설 기록이나,<sup>46)</sup> 장수왕 60년 이전까지 散見되는 漢化된 姓을 가진 幕僚(長史)들의 존재로 볼 때 알 수 있다.<sup>47)</sup> 그리고 지방제도에 있어서도 5세기에는 고구려의 주요 지역에 중국적 郡制가 시도되기도 한다.<sup>48)</sup> 고구려 왕권이 주도한 이 같은 제 시도들의 실행을 담당할 주체가 낙랑·대방계 세력이었음을 추측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漢文化적 지향성은 6세기에 들어 政局의 혼란을 겪으며 갑작스럽게 사라진다. 5세기 幕府制의 요소들은 6세기 이후 전혀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고, 地方官名들도 守事·太守 등 漢化된 명칭이 소멸되고 오히려 고구려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褥薩·處閭近支·可邏達·婁肖 등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기록의 누락일 수도 있겠지만, 平原王(559~590)대에 활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王高德<sup>49)</sup>의 존재가 확인될 때까지는 낙랑·대방계 인물들도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것은 단순한 國王 근시조직의 소멸이나<sup>50)</sup> 지방제도의 변동 차원이 아

45) 하지만, 이때 樂浪·帶方系 귀족들이 자신들의 세력기반을 모두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부는 죽거나 외국으로 망명행에 올랐겠지만, 다수는 中央政界에서 밀려나는 정도로 그쳤을 것이다.

46) 『梁書』 54, 高句麗.

47) 『宋書』 97, 東夷 高句麗.

48) 노태돈, 앞의 논문, 1996 참조.

49) 『海東高僧傳』 1, 義淵傳.

나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판단된다.<sup>51)</sup> 곧 그 제도를 운용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던 정치세력들이 어느 시점에 중앙정계에서 도태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이 5세기 후반 장수왕에 의해 행해진 낙랑·대방계 세력에 대한 대숙청이 아닐까 한다.

### 3. 長壽王 사후의 政局 및 統治體制的 변화

#### (1) 文咨王代의 政局

고구려는 가장 강성하고 대내적으로 왕권의 극성기였던 장수왕대가 지나고 6세기에 들어서면서 커다란 정치적 전환기를 맞이한다. 이것은 장기간에 걸친 政亂으로 인해 중앙 귀족들이 분열·대립을 계속하고, 왕권이 약화되면서 정치적으로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래의 大對盧 관련기사는 이러한 고구려 후기의 변화된 정세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E-1) 其大對盧 則以強弱相陵奪而自爲之 不由王之署置也(『周書』 49, 異域列傳 上 高麗)

E-2) 其官大者 號大對盧 比一品 總知國事 三年一代 若稱職者 不拘年限 交替之日 惑不相祗服 皆勒兵相攻 勝者爲之 其王但閉宮自守 不能制御(『舊唐書』 199, 東夷列傳 高麗)

中國 史書에 채록된 위의 두 기록은 고구려사로는 6세기 후반부터 멸망

50) 6세기 후반에 中裏制로 근시조직이 되살아나기는 하지만, 이것은 고구려적 요소가 강한 것으로 5세기 幕府制의인 요소와는 차이가 있다(이문기, 앞의 논문, 2000, 93~95쪽).

51) 노태돈 역시 6세기 지방제도의 變改가 중앙 정계의 중대한 변화와 함께 일어났으리라 추측하였다(노태돈, 앞의 책, 1999, 285~286쪽).

기까지에 해당이 된다. 당시 國事를 총괄하던 大對盧는 3년 임기였으며, 교체 시 서로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을 경우 싸워서 이긴 자가 차지했는데 王도 다만 宮門을 닫고 스스로를 지키기만, 이를 제어하지 못했다고 한다.

물론, 위의 기사 내용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sup>52)</sup> 6, 7세기 내내 고구려 정국이 혼란만을 거듭하였고, 권력 교체 시마다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 무력대결을 펼쳤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外國(中國)의 正統 史書에 유사한 사실이 반복해 수록된 것을 감안하면,<sup>53)</sup> 위의 기록이 최소한 특정 시기의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다. 곧, 中國에 北周가 존재했던 6세기 중반 이후 고구려의 정치적 양상을 묘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있는 것이다.

위 자료들은 당시 고구려에서 귀족세력이 강성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익(大對盧職의 획득)에 따라 분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궁문을 닫고 관망만 할 수밖에 없었던 왕의 모습은 왕권이 매우 약화되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것은 전체적이고 초월적 면모를 보이던 5세기의 왕권과는 판이한 모습이다.

김현숙은 이러한 고구려 후기 지배층 내부의 혼란을 이미 文咨王代(491~519)에 예견된 것으로 보고, 이 시기 정치적 변동의 動因이 이미 그 이전인 장수왕·문자왕대부터 內燃되어왔다고 하였다.<sup>54)</sup> 문자왕대의 내부 정세를 직접적으로 전하는 기록은 전혀 없다. 다만, 『三國史記』가 文咨王 당

52) 일부 논자는 이 기록에 대해 과거에 있었던 예외적인 사건을 상례적인 것으로 일반화하여 기술하였다고 여기거나, 또는 과거 실력대결에 의해 대대로가 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의 遺制가 전해져 대대로 취임식 때 거행되는 한 의식으로 모의전투 장면 같은 것이 연출되었고 이를 중국인이 오해해 마치 실제 무력대결이 행해졌던 것처럼 기술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견해를 제기하기도 하였다(請田正幸, 「高句麗莫離支考」, 『旗田巍古稀紀念 朝鮮歷史論集』 上, 1975, 127쪽).

53) 위의 기사들이 中國正史에 실리는 과정은 노태돈이 자세히 고증한 바가 있다(노태돈, 앞의 책, 1999, 438~443쪽).

54) 김현숙,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2005, 312~314쪽.

시 유난히 天災地變과 宮門 붕괴 등의 사건을 많이 전하고 있음에 유의한 것으로, 이 시기에 중앙 귀족들 사이나 혹은 國王과 귀족세력 간에 알력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을 따름이다.<sup>55)</sup>

그리고 문자왕 당시 국제 정세도 고구려에 불리하게 전개되어 新羅, 百濟, 勿吉 등이 고구려의 변경을 위협하고, 때로는 고구려가 밀리기도 하였다.<sup>56)</sup> 다음은 문자왕 재위 전반부터 百濟의 공세로 인해 고구려가 수세에 몰렸음을 추측케 하는 기록들이다.

F-1) 武寧王 7年(文咨王 16年) … 冬十月 高句麗將高老與鞅鞅謀 欲攻漢城 進屯於橫岳下 王出師戰退之(『三國史記』 26, 百濟本紀4 武寧王7年)

F-2) 武寧王 21年(安臧王 3年) 遣使入梁朝貢 先是爲高句麗所破 衰弱累年 至是上表 稱累破高句麗 始與通好 而更爲強國(위의 책, 武寧王7年: 『梁書』 54, 列傳48 百濟)

F-3) 武寧王 23年(安臧王 5年) 春二月 王幸漢城 命佐平因友達率沙烏等 徵漢北州郡民年十五歲以上 築雙峴城 … (위의 책, 武寧王23年)

특히, 百濟의 경우 F-1)에 나타난 漢城 기사로 보아, 武寧王 7년(507) 이전에 이미 고구려로부터 한강유역의 일부를 수복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적어도 F-3)에 보이는 雙峴城의 축성시기(523)까지는 계속 그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한 듯하다. 이는 武寧王代 百濟가 다시 強盛해졌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유명한 사료인 F-2)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여기서 백제는 여러 차례 高句麗를 군사적으로 격파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55) 신형식에 의하면 이러한 일련의 재해와 지진, 붕괴 등의 사건 기록은 정치적 변화를 수반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고 한다(신형식, 『삼국사기연구』, 일조각, 1981, 184~191쪽).

56) 노태돈은 이후 국제 정세는 더욱 고구려에 불리해져, 양원왕 7년(551) 고구려는 遼河유역 서부 국경의 안정을 위해 한강유역을 신라에게 넘겨주게 된다고 보았다(노태돈, 앞의 논문, 1976: 左同, 『三國史記』 新羅本紀의 고구려관계 기사 검토, 『慶州史學』 16, 1997, 83~87쪽).

이것은 장수왕의 漢城 陷落(475)이 있던 지 불과 30여 년만의 일로, 百濟의 국력회복 속도가 빨랐던 이유 외에도 고구려 내부에서 國外의 변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치 못할 정도로 불협화음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sup>57)</sup> 그러나 자료의 한계상 구체적인 실상을 밝혀내기는 어려울 듯하다. 다만, 이 같은 문자왕대 고구려 내부의 난기류가 장수왕 후반기의 귀족 숙청 사건과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할 뿐이다.

문자왕은 즉위과정에서부터 상당한 난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장수왕의 孫子로서 그의 아버지인 古鄒大加 助다가 일찍 죽자 祖父인 장수왕에 의해 宮안에서 양육되고, 大孫으로 책봉되었다.<sup>58)</sup> 이는 嫡長 繼位원칙을 지키기 위한 장수왕의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린 嗣孫의 위치를 위협할 수도 있는 잠재적 적대세력으로부터 大孫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도 볼 수 있다.

곧 장수왕은 왕위 계승에 있어 자신의 長孫보다는 衆子측을 지원하는 세력들로부터 大孫의 안전을 지키려 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前章에서 언급한 장수왕대의 대숙청 사건이 문자왕의 王位繼承과 직접 관련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불안의 요소는 문자왕의 즉위 이후에도 꺼지지 않고 난기류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문자왕의 안전한 繼位를 위해 장수왕의 억압을 받았던 대상들 및 그와 연계된 정치 세력들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발생한 안장왕의 시해 사건과 연관되어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sup>59)</sup>

57) 특히, 문자왕대에는 秕政에 대한 강한 批判的 의미를 지닌 地震기사가 두 차례나 있어 內訌의 조짐이 강하게 드러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申滢植, 『韓國古代史에 있어서 地震의 政治的 意味』, 『東洋學』 14, 1984, 5~12쪽 참조).

58) 『三國史記』 19, 高句麗本紀 文咨王即位年條.

59) 김현숙, 앞의 책, 2005, 314쪽.

## (2) 안장왕 시해로 인한 政局의 혼란과 集權體制의 붕괴

앞에서 언급한 大對廬 관련 기사 외에 6세기 이후 고구려의 왕권이 급격히 약화되고, 政局혼란이 본격화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기록들이 있다. 바로 『日本書紀』에 실려 있는 安臧王(519~531)의 피살과 安原王(531~545)의 사망 시 일어났던 외척 간의 왕위계승 분쟁에 관한 기록들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비록 『三國史記』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계에서는 『日本書紀』의 기록을 신뢰하고, 고구려 후기 정치동향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인정한다.<sup>60)</sup>

G-1) … 是月高麗殺其王安 … (『日本書紀』 17, 繼體紀25年 細註)

G-2) 其年 高麗大亂 被誅殺者衆(百濟本紀云 十二月甲午 高麗國細群與麤群戰于宮門 伐鼓戰鬪 細群敗 不解兵三日 盡捕誅殺細群子孫 戊戌 狛國香岡上王薨也)(위의 책, 欽明紀6年)

G-3) 是歲 高麗大亂 凡鬪死者二千餘(百濟本紀云 高麗以正月丙午 立中夫人子爲王 年八歲 狛王有三夫人 正夫人無子 中夫人生世子 其舅氏麤群也 小夫人生子 其舅氏細群也 及狛王疾篤 細群麤群各欲立其夫人之子 故細群死者二千餘人也)(위의 책, 欽明紀7年)

이 기사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6세기 초·중반부터 고구려의 정세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G-1)은 왕권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長壽王과 文咨王에 이어 즉위한 安臧王이 弑害당했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 자체가 워낙 소략하고 다른 史書에서는 유사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 자세한 내막을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안장왕의 죽음으로 인해 6세기 고구려의 政局은 본격적인 혼란으로 치

60) 6세기 초중반 고구려의 상황을 전하는 이 기록에 처음 주목한 것은 李弘植이다(李弘植, 『日本書紀所載 高句麗關係記事考』 1·2, 『동방학지』 1·3, 1954·1957; 『한국고대사의 연구』, 신구문화사, 1971).

달았음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G-2)와 G-3)은 안장왕에 이어 즉위한 안원왕도 細群과 麤群이라는 외척세력 간의 다툼 중에 사망했음을 전하고 있다. 이는 이전 시기와는 달리, 6세기에 들어 왕권이 매우 약화되고, 지배층 내부에 분열이 심각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陽原王(545~559)의 즉위를 둘러싼 싸움에서 2천 명이나 되는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볼 때, 政亂에 참가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귀족의 수는 더욱 많았으리라 짐작된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외척세력 간의 싸움이 아니라 세군과 추군으로 대표되는 두 정치세력 간의 충돌로 보여진다.<sup>61)</sup> 여기서 前王인 안장왕의 피살 역시 지배층 내부의 알력으로 인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세력 간의 다툼이 외척의 지위를 놓고 벌어진 것을 볼 때 지난 시기 동안 높아진 왕권의 위상을 짐작케 하며, 귀족들도 그것을 인정해 國王의 권위 자체에 도전하기보다는 이를 매개로 하거나 假威해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해 나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토록 급작스럽게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들이 분열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이러한 고구려 후기 지배층의 분열 양상에 대해 임기환은 국내계 구귀족세력과 평양계 신귀족세력의 대립·갈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사료에 나타나는 麤群을 평양계로 細群을 국내계로 나누어 보았으며, 평양계 세력의 등장 시기를 장수왕의 평양천도로 설정하였다. 물론 국내계, 평양계라는 설정이 특정 지역 간의 대립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두 세력 모두 중앙정계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국내계는 고구려 초기 이래 중앙귀족으로 성장한 전통적인 구귀족세력과 연결되며 국내지역에서의 세력기반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던 집단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신·구 귀족세력들의 대립이 안장왕대부터 양원왕대에 벌어진 귀족세력 간의 정쟁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파악했다.<sup>62)</sup>

61) 김현숙, 앞의 책, 2005, 309쪽.

그러나 6세기 이후 발생하는 고구려 지배층의 분열은 단순한 양자대결 형태로 나타난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토대를 둔 세력 간의 다툼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나친 도식화가 아닐까 한다.

당시 고구려는 지난 세기 동안 집권화가 강화되고, 遷都를 통해 지배층의 성격과 기반이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더구나 이미 5세기 말에 대규모 숙청을 겪으면서, 6세기 초반 당시에는 귀족세력들 간의 반목보다는 왕권과 귀족세력들이 대결을 펼치는 구도를 맞지 않았나 생각된다. 물론 國王과 귀족세력들이 반목하게 된 것은 장수왕의 대숙청과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온 王權의 專制化로 인해 세력이 약화된 귀족들의 불만이 누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5세기에는 왕권강화에 동참했던 국왕의 近侍의 세력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이들은 평양천도 이후에는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주도권을 확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주로 樂浪·帶方系 귀족들이었던 이들은 장수왕의 대숙청으로 5세기 후반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이후에는 자신들의 독자적인 정치색을 띠기보다는 스스로의 생존과 이해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였을 공산이 크다. 물론 國內城 시절부터 있어 오고, 그 지역의 세력기반도 어느 정도 온존시키고 있던 전통적인 구 귀족들과도 여러 형태로 결합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곧 6세기 이후 고구려 지배층의 분열은 신·구세력의 갈등이라기보다는 당시의 현실적 이해관계에 의해 편제된 세 세력들 간의 다툼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위의 추군과 세군은 기본적으로는 모두 전통적 구 귀족세력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고구려 후기에 반복되는 정쟁에서 고정적으로 대립하는 양대 정치세력이 아니라, 당시의 현실적 이익에 따라 일시적으로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곧 언제든 당면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長壽王代의 대숙청과 安臧王의 죽음은 어떤 연관

62) 임기환, 앞의 책, 2004, 262~281쪽.

성을 갖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安臧王 피살의 정확한 원인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는 장수왕 후기부터 본격적으로 누적되기 시작하였을 귀족들의 불만과 반감이 내부적으로 난기류가 흐르던 문자왕대를 지나 왜 안장왕대에 國王의 弑害라는 극단적 사건으로 돌발하였는지를 규명하는 것과 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정확히 밝히고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現傳하는 안장왕의 행적들을 통해 유추해 볼 수밖에 없다. 다음은 안장왕대에 일어난 사실들을 전하고 있는 기록들이다.

H-1) 安臧王 3年 夏四月 王幸卒本 祀始祖廟 五月 王至自卒本 所經州邑貧乏者賜穀人一斛(『三國史記』高句麗本紀 安臧王3年)

H-2) 安臧王 11年 春三月 王畋於黃城之東 冬十月 王與百濟戰於五谷克之 殺獲二千 餘級(위의 책, 安臧王11年)

사료 H-1)은 안장왕이 재위 3년에 始祖 鄒牟王의 사당이 있는 卒本으로 가 親祀하고, 돌아오는 길에 州邑들을 지나오며 빈핍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賜與한 일종의 賑恤에 대한 기록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高句麗本紀에서 거의 200년만에 나타나는 王의 始祖廟 참배 기록의 의미이다. 고구려왕의 시조묘 참배는 본래 왕권 강화를 위한 정치적 의도가 짙고, 특히 후기의 시조묘 親祀는 巡狩의 의미가 강하다.<sup>63)</sup> 다음은 『三國史記』高句麗本紀에 실린 시조묘 참배에 대한 기록들을 모은 것이다.

<표 1>에서 보이듯 왕권이 강화되고 집권체제가 확립된 4, 5세기의 소수림왕~문자왕대에는 시조묘에 대한 親祀 기록이 없다. 이러한 기록상의 단층이 발견되는 것은 사실의 누락이라기보다는 왕권의 전제화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64)</sup> 곧 中央集權體制가 완성되고 절대적인 國王권이 확립된 시기에는 國王의 시조묘 참배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63) 최광식, 「三國의 始祖廟와 그 祭祀」, 『대구사학』 38, 1989, 17쪽.

64) 조인성, 「高句麗墓制考」(한국고대사연구회 제11회 정기발표회 논문요지), 1989.

<표 1> 고구려왕들의 始祖廟 참배기사

회차	王名(왕대)	시 기	
1	大武神王(3)	왕3년(20)	전·중기
2	新大王(8)	왕3년(167)	
3	故國川王(9)	왕2년(180)	
4	東川王(11)	왕2년(228)	
5	中川王(12)	왕13년(260)	
6	故國原王(16)	왕2년(332)	
7	安臧王(22)	왕3년(521)	후기
8	平原王(25)	왕3년(561)	
9	榮留王(27)	왕2년(619))	

이를 바탕으로 안장왕대의 정세를 추론해 본다면,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 인지는 알 수 없지만 왕권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다시금 귀족세력이 강성해졌음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안장왕이 이러한 왕권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의 일환으로 시조묘 親祀에 나섰다라고 생각된다.

H-2)는 안장왕이 군사훈련적 성격의 畋獵<sup>65)</sup>을 행하고,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가 百濟軍과 전투를 수행할 정도로 강인했음을 보여준다.<sup>66)</sup> 이것은 대외정복활동을 통해 국왕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集權體制를 강화하였던 中期 왕들의 행적과 유사하다. 특히, 왕이 몸소 군대를 지휘해 싸우는 것은 왕권강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sup>67)</sup> 이전 文咨王代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참고로 <표 2>를 보면 후일 嬰陽王이 對隋戰爭의 위기가 고조된

65) 고구려왕의 畋獵(田獵, 狩獵)활동이 군사훈련의 의미를 크게 지닌은 이미 밝혀진 바가 있다(김영하, 「高句麗의 巡狩制」, 『歷史學報』 106, 1985, 20~27쪽).

66) 손영중에 의하면 安臧王 11년(529)에 행한 對百濟 親征은 백제를 漢水유역에서 완전히 축출하고 聖王이 泗水로 천도를 감행할 수밖에 없게 하였을 정도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손영중, 『고구려사』 1,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1990: 백산자료원, 1997, 372~378쪽).

67) 대외정복활동에서 親征의 형태는 왕권강화와 밀접히 관련되었다(이도학, 「漢城末 熊津時代의 百濟王位繼承과 王權의 성격」, 『한국사연구』 50·51合集, 1985, 10~11쪽).

<표 2> 5세기에서 6세기 國王의 親征 및 畋獵 기록 비교

王名(在位)	親征회수	畋獵회수	出典
廣開土王(391~413) <sup>68)</sup>	6	1	廣開土王碑文, 三國史記
長壽王(413~491)	2	1	三國史記
文咨王(491~519)	·	1	三國史記
安臧王(519~531)	1	1	三國史記
安原王(531~545)	·	·	
陽原王(545~559)	·	·	
平原王(559~590)	·	1	三國史記
嬰陽王(590~618)	1	·	三國史記

가운데서 행한 親征이 있기 전까지 6세기 고구려 국왕이 몸소 군사를 이끌고 싸움터로 나간 것은 안장왕이 처음이자 마지막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실추된 왕권의 회복을 피하며 강한 군주의 모습을 보이던 안장왕에 대하여 귀족세력들은 적잖이 위기감을 느꼈으리라 생각된다.<sup>69)</sup> 그리고 이 같은 안장왕의 활동이 있는 지 불과 2년 후에 왕이 시해된 것을 보면 그런 의혹은 더욱 증폭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고구려는 6세기 초중반에 王의 弑害라는 극단적인 사건으로 인해 이후 본격적인 政局 혼란을 겪게 된다. 필자는 安臧王의 죽음이 王의 왕권회복 노력에 대해 위기감을 느낀 귀족들에 의해 감행된 일이라 추측한다. 國王 弑害를 직접 감행한 주체는 장수왕 말년에 탄압을 받았던 樂浪·帶方系 귀족이거나 혹은 이전부터 왕권의 견제를 받아 상당히 약화되었던 구 귀족세력들일 것이다. 안장왕의 피살이 5세기 말의 대숙청

68) 표에서 廣開土王의 親征 기록은 李亨求의 『廣開土大王의 內治와 外治』(『學藝誌』 4, 陸軍士官學校博物館, 1995)를 참조함.  
 69) 위의 기사들 외에도 安臧王이 몸소 군사들을 이끌고 작전을 지휘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기록이 『三國史記』 卷37, 地理4 漢山州條에 '漢氏美女'설화의 형태로 전하고 있다. 申采浩 역시 이를 '韓珠'설화로 소개하며 안장왕대의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었다(申采浩(李萬烈 註釋), 『朝鮮上古史』(下), 丹齋申采浩先生記念事業會, 1983, 335~339쪽).

과 관련이 큼을 상기한다면 전자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사건이 왕권과 귀족세력의 반목에서 기인하였고, 이미 이 시기에는 양 귀족세력 간의 대립적 요소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미미하였을 것이므로 정확한 시행 주체를 밝히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귀족들이 왜 안장왕의 강한 면모와 王權회복 노력에 위기감을 느껴야만 했을까하는 점이다. 그리고 長壽王代까지 그렇게도 강했던 王權이 文咨王代를 지나 安臧王代에는 왕이 많은 힘을 들여 다시금 회복시켜야 할 만큼 약화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앞에서 검토한 바 있는 長壽王 60년(472)을 전후한 시기의 대규모 귀족 肅清 사건으로 다시금 돌아갈 필요가 있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樂浪·帶方系 귀족들은 왕권과 밀착되어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 왔었다. 그러므로 이들을 숙청한 王은 당장은 王權에 위협이 될 만한 세력을 제거한 효과를 얻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자신을 지지할 세력을 상실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다.

물론 장수왕 말년까지는 정복군주이며 노획한 政客이었던 왕의 개인적 권위에 의해 정치가 주도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당시에는 귀족들이 國王에게 저자세를 취하며 복종하는 듯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실상 귀족들은 언제든 자신들의 세력회복을 위한 기회를 엿보지 않았을까 한다. 해서 장수왕의 뒤를 이은 文咨王代부터 점차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 지지세력을 상실한 왕권은 급격히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내부에서는 서서히 反王權의 인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sup>70)</sup>

이러한 정세 가운데서 즉위한 安臧王은 다시금 君主權 회복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고, 이를 위해 많은 시도를 벌였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그가 행한 始祖廟 참배나 親征 등이 왕권강화를 위한 정치적 행위였다고 볼 수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미 王權에 대한 지지기반이 없어진 상황에

70) 이것이 『三國史記』 文咨王條에 보이는 각종 災害, 天災地變, 宮門崩壞 등의 사건으로 묘사된 것이 아닐까 한다(신형식, 앞의 책, 1981).

서 감행한 이 같은 활동들은 성과를 얻기가 어려웠다. 오히려 國王의 권력이 강화되면 언제든 자신들의 기반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느낀 귀족세력들의 위기감만 증대시켜 결국 王이 弑害되고 政局은 본격적인 혼란으로 빠져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안장왕에 이어서 즉위한 安原王은 안장왕이 無嗣子였음을 고려할 때,<sup>71)</sup> 당시 유력한 귀족들의 합의에 의해 옹립된 것으로 보인다. 안장왕의 弑害 자체는 안장왕의 왕권강화 시도에 위기감과 불만을 크게 느낀 일부 귀족들에 의해 자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安原王의 즉위는 당시 국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던 귀족들의 합의하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것이 곧 貴族聯立體制의 시발이다.

#### 4. 맺 음 말

지금까지 장수왕대를 전후한 시기 고구려의 政局 동향에 대하여 長壽王의 귀족 숙청 사건과 安臧王의 弑害로 인한 6세기 정국혼란과 그 결과로 성립된 귀족연립체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시기는 고구려 정치사에서 中期에서 後期로 넘어가는 시기구분의 분수령이 됨과 동시에 체제변화가 일어나는 정치적 변동기였다. 다시 한 번 本稿의 논의들을 요약 정리해봄으로써 結論을 대신하고자 한다.

고구려는 꾸준한 왕권강화의 과정을 거치며 5세기에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였다. 특히 장수왕대는 王室의 神聖化와 고구려의 독자적 天下觀 형성 등을 통해 國王의 위상은 절정에 오르고 專制的 왕권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장수왕은 고구려 국가와 왕권의 안정을 위해 平壤으로의 천도를 감행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왕권 강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樂浪·帶方系 귀족세력들이다. 이들은 4세기 이래 고구려가 舊 中國郡縣地域(樂浪·帶方)을 領域化하는 과정에서 왕권에 의해 수용되었고, 이후 더욱 王權과 밀착해 근시세력화하며 왕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5세기 무렵 왕권과 연계한 이들은 중앙 정계의 주요세력으로까지 성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長壽王의 재위 후반에는 왕이 大孫(文咨王)의 안정적 繼位와 절대적 왕권의 유지 등 다양한 정치적 판단하에 이들을 대거 숙청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이 시기 고구려의 樂浪·帶方系 귀족세력들이 中國으로 망명하고 있는 기록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5세기 후반의 樂浪·帶方系 귀족세력 숙청은 중·장기적으로 고구려 왕권에 큰 부담을 주어, 이후 支持세력을 상실한 왕권은 급속히 약화되고 내부적 난기류를 형성케 하였다. 이것이 文咨王代에 각종 災害사건과 대외적 劣勢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한다.

문자왕대부터 보인 이 같은 왕권약화의 조짐은 安臧王代에는 더욱 가속화되었고 자연히 귀족세력은 상대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이런 정세 가운데서 즉위한 안장왕은 다시금 군주권 회복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始祖廟 親祀와 대외 親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러나 왕권을 뒷받침할만한 기반이 없는 가운데서 행한 여러 시도들은 성과를 얻기가 어려웠고, 오히려 왕권 강화를 경계한 귀족들의 위기식만 증대시켜 결국 자신이 被殺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안장왕의 弑害는 6세기 고구려의 政局을 본격적인 혼란으로 치닫게 하여, 귀족연립체제의 성립을 가져오게 된다.

(원고투고일 : 2008. 9. 29, 심사수정일 : 2008. 10. 29, 게재확정일 : 2008. 11. 17)

주제어: 장수왕, 귀족 숙청, 낙랑·대방계, 평양천도, 집권체제, 왕권, 시조묘 친사, 안장왕 시해, 귀족 분열, 귀족연립체제

71) 『三國史記』高句麗本紀 安原王即位年條.

<ABSTRACT>

## The Political Situation and System Change Before and After the Reign King *Jangsu* of *Goguryeo* Dynasty

Jo, Yeong-kwang

In the political history of *Goguryeo*(高句麗), from the end of the fifth century to the early sixth century was very important period. It was the watershed of periodization that showed the transition to the latter period from the middle period. And it was political fluctuating period when systemic change occurred. *Goguryeo* went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regal power steadily and became an adamant centralized kingdom in the fifth century. Especially during the King *Jangsu*(長壽王)'s rein the royal household was scared and *Goguryeo* formed an individual outlook on the world. During the period the royal authority was in its peak and absolute regal power was established. In this back ground King *Jangsu* transferred the Capital to *Pyeongyang*(平壤) for the security of the nation and the regal power.

In the process of strengthening regal power *Nakrang-Daebang* Aristocratic Group(樂浪·帶方系) played an important role. They were subsumed under a monarch when *Goguryeo* subjugated the bygone Chinese Colonies(漢郡縣) since the fourth century. After that they stucked to the king and became a councilors who attend the king closely. In that way they supported the royal authority. About fifth century they coalesced with king and in the end became a major group in the central political circles.

It seems that King *Jangsu* purged them in the latter half of the rein

under a various political adjudge like secure succession of the throne by the eldest grandson of king and maintenance of absolute sovereign authority. It can be confirmed by the records which said that the *Goguryeo* Aristocratic Group of Koguryo in that time took refuge in China.

The liquidation of *Goguryeo* Aristocratic Group burdened to the regal power of *Goguryeo* in the long term. After that liquidation the regal power lost its supporters and was weakened rapidly. It caused domestic turbulence. Maybe the calamities and inferiority of the foreign relation during the King *Munja*(文咨王)'s rein was the result of those series of affairs.

Like this, from the King *Munja*'s rein there appeared the symptom of weakening royal authority. It was accelerated in King *Anjang*(安臧王)'s rein and in contrast the aristocratic power became stronger. Coming to the throne in this situation, King *Anjang* felt the necessity of regaining the regal power. So he worshiped the Founder's shrine and conducted an expedition in a person by the king and so on. But all those efforts conducted without foundation that could support the royal authority hardly get the results. Rather they increased the threat of the aristocratic group who guarded against the strengthening of regal power and caused the regicide of King *Anjang* himself. The regicide of king An-Jang drove the political situation of *Goguryeo* to a full-dress confusion. And it resulted in the establishment of Aristocrats-coalition Government.

Key Words: King *Jangsu*, Purge of the Aristocracy, *Nakrang-Daebang* Aristocratic Group, Transfer of the Capital to *Pyeongyang*, the Regal Power, the Centralizing System Worship, the Founder's shrine, the Regicide of King *Anjang*, Power Struggle of the Aristocracy, Aristocrat-Coalition Government